

Exhibition 'Creating the New Normal Packaging'

6명의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New Normal 패키지'

三原 美奈子 / PAKECTION 주재(三原美奈子디자인)

I. 서론

'PAKECTION'은 2008년에 일본 관서지역에 주재한 패키지디자이너들에 의해 결성된 그룹이다. 전원이 (공익사단법인)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에 소속되었으며, 지금까지 패키지디자인에 관한 정보 교환이나 자주 연구회를 하며 현지기업과 협동해 제작한 창작작품의 전시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II. 전시회의 테마

지난 3월 23일 PAKECTION은 8번째 전시회 'New Normal 해봤다 전시'를 오사카 부립 에노코지마문화예술창조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디자이너는 6명. 온라인(Youtube 동영상으로 작품 소개, 인스타그램으로 전시장 현장 방송)으로도 병행 개최해 전시장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도 작품이나 종이·가공의 상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은 현재에도 온라인으로 관람 가능하다(<https://newnormal.pakection.com/>). 이번 전시회의 테마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온라인 회의를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의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아직 팬데믹 영향도 있어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시도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해봤다'라는 단어를 전시회명에 추가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하고 있는 SDGs도 의식했다.

III. 현지기업과의 강력 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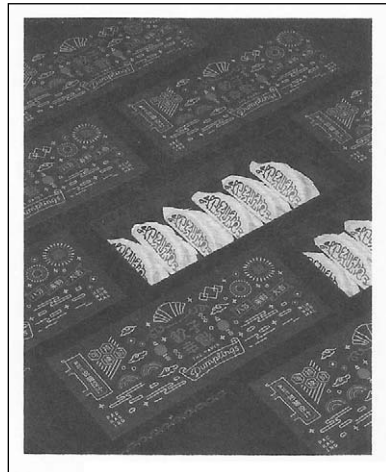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전시회는 많은 현지기업이 참여해 종이나 인쇄가공의 건본품으로써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디자인도 인쇄가공도 챌린지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회를 열고 소재 특성이나 기업 기술을 이해한 다음에 쌍방이 협력해 제작에 임했다.

이번 테마 소재는 ㈜다케오의 ‘박수(箔守)-FS’. 포일압연을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한 종이로, 포일 제조사인 무라다금박(주), 포일판 제조의 (주)와코, (주)Sakae Plus, 츠지가와(주)의 협찬을 받아 지금까지 없던 포일 사용으로 화제가 되었다.

IV.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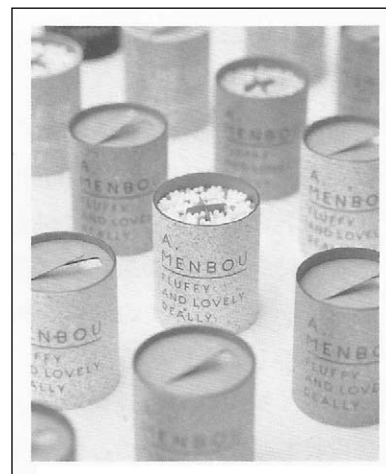
[사진 1] ‘만두행복’ 三原美奈子



■ 만두모양 종이 개포장을 고안

차이나타운의 만두가게를 이미지해 까만 상자에 네온컬러를 포일 압연한 ‘만두행복’은 三原美奈子の 작품.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개포장이다. 향균지 ‘제오미라이’에 콘택트 풀을 도포해 내용물을 감싸는 종이의 개포장. 굽는 부분에는 브론즈색 포일 압연을 실시했다. 내용물은 굳이 설정하지 않았지만, 종이이기 때문에 잡화 등으로 제한된다. 개포장의 종이화는 기능성 문제도 있어서 추진이 어렵지만, 만두라는 매력적인 형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재미나 주목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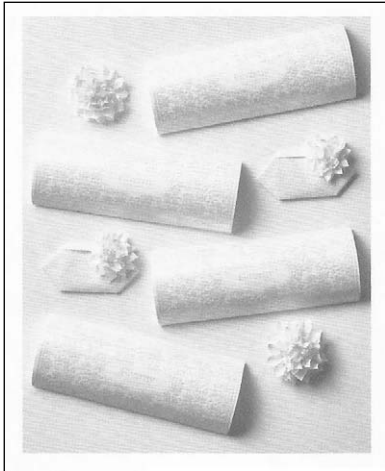
[사진 2] ‘A-MENBO’ 三原美奈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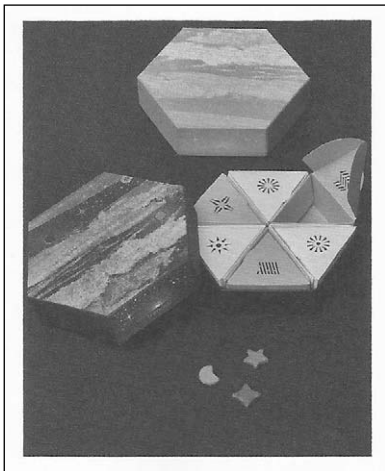
■ 즐겁게 오래 사용하고 싶은 면봉 패키지

마찬가지로 三原美奈子の 작품 ‘A-MENBO’는 지관의 면봉 패키지를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면봉 패키지는 간이 플라스틱 용기로 일회용인 것이 많은데, 디자인성을 높여 리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제안. 입자형의 컬러풀한 무늬가 눈길을 끄는 종이 클로스 ‘스프링클’을 몸통 둘레에 적용하고, 형형색색의 포일 압연을 실시했다. 자신이 선호하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메이크업 도구로써 즐겁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 3] 'Giverny' 湊潤子



[사진 4] 'tomosou' 山内理恵



[사진 5] 'FUKUNeko Handkerchief' 富山美紀



■ 천연 예방의료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Giverny'는 자포니즘(Japonism)을 이미지한 유기농 허브티의 패키지이다. 허브티는 그 섬세한 향과 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약효 등도 기대되는 천연 치료약(예방약)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주목받는 가운데 '천연의 힘'을 재검토하자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선조의 지혜라고 제작자 湊潤子は 생각했다. 스노우볼(snowball)의 하얀 세계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는 실키 미스트(포일 압연)와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 엠보싱가공이 '빛'과 '그림자'의 온화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집에 있는 시간을 장식하는 포일이 아름다운 종이상자

6색형 종이상자(貼箱)로 만든 관상용 향 세트는 포일의 반짝임을 유지하는 '박수(箔守)'를 사용해 포일의 하모니를 즐길 수 있는 山内理恵의 작품이다. 노이즈 무늬를 넣은 1판째는 실키 카멜 포일로 노을을 표현, 2판째는 채광육식판②을 적용해 애플리콧(apricot) 포일로 강한 반짝임을 구현했다.

3판째는 빛을 이미지한 판으로, 투과하는 홀로그램 포일을 겹쳐서 가공. 각도에 따라 아름다운 반짝임을 느낄 수 있다. 각각으로 꺼내지는 내부 상자는 레이저로 모양을 새겨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양으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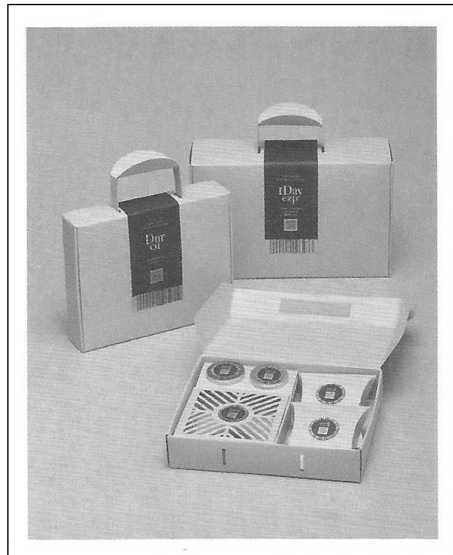
■ 펫 붐(pet boom)에 경종을 울리는 사랑스러운 패키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펫 붐(pet boom)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육방치문제. 이를 작품의 테마로 한 富山美紀의 'FUKUNeko

Handkerchief'는 손수건을 입체적인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 시각적 자극(hook)을 주고 있다. 또한 몸체를 감싼 종이 슬리브의 설계를 연구해 자립하는 패키지 기능을 부여했다. 슬리브의 무늬는 모두 포일 압연. 새롭게 발매된 미묘한 뉘앙스의 컬러를 사용해 포일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렸다.

보통 가지고 돌아가는 손수건. 사용 시에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련 문제를 재인식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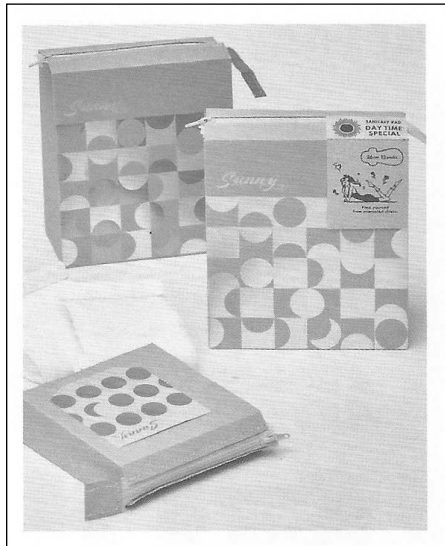
[사진 6] 'OHITORI COOKINGPACK' 湊潤子



■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한 안심감 있는 1인식

미혼, 이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싱글세대가 증가하는 오늘날. 湊潤子が 제안하는 것은 식재료를 콤팩트하게 정리한 '1인용 식자재 세트 - OHITORI COOKINGPACK'이다. '식품 로스 문제의 삭감', '포장의 간소화', '영양 관리' 등 많은 장점을 담은 이 세트는 심플한 코드로 1인가구의 식생활을 지원한다. 에코백이 불필요한 핸들 부착 형태로, 택배 등의 규격에 맞춘 콤팩트한 설계가 특징이다. 종이소재로 환경을 배려한 삼립인증지(GA 크래프트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7] 'Sunny' 山内理惠



■ 인테리어에도 친숙한 새로운 생활용품

쓰레기를 줄여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3R을 콘셉트로,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Sanitary Pad Box'를 고안. 퍼스트 빈티지 종이에 지퍼를 봉합한 것이 디자이너 山内理惠의 고집. 두 종류의 포일가공을 실시해 탄생한 디자인성과 크래프트 소재와의 대조가 패션성을 높이고 있다. 인테리어에도 친숙한 POP 디자인과 젠더리스(genderless)한 2가지 패턴으로 전개.

[사진 8] 'OXring' 馬場良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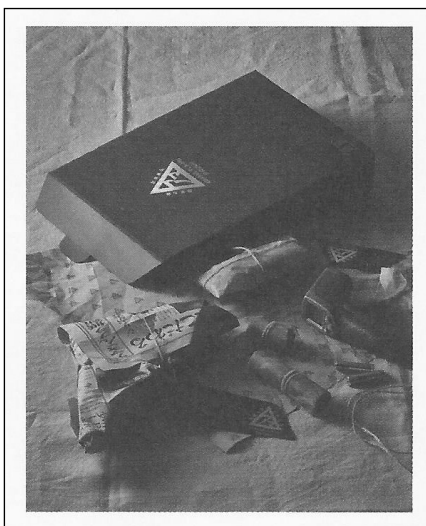
■ NFC 태그로 복약환경의 극적 개선을 고안

조제 약국에서 약을 받고 돌아갈 때에 이용하는 새로운 리유스 패키지를 제안한 것이 馬場良人の 작품 'OXring(옥스링)'이다.

먼저 약 정보를 취급하는 클라우드 의료 서비스를 고안하고, NFC 태그로 패키지를 IoT화 하는 것으로 병원과 조제약국, 환자의 3자 간에 보다 세심한 복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다.

반복 사용하는 것의 필연성, 그것에 상응하는 디자인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모색한 '환경배려형 기능성 패키지'이다.

[사진 9] '아마상 플라스틱 없는 상회' 三河内英樹



■ 패키지가 아픈 상품을 구하는 재미있는 노력

'아마상 플라스틱 없는 상회'는 三河内英樹가 작품용으로 만든 가상의 인터넷쇼핑몰 업자이다. 어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상 플라스틱 없는 상회'가 해결한다.

반품이 반복돼 쓰레기가 되는 상품을 '반대 있음'의 간이 포장으로 리패키지해 판매하는 것을 이미지했다.

포장지에는 재생 가능한 종이소재 '쿠라시 코토레이싱-FS'를 적용했다. 유지나 파라핀지 풍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커버했다.

이밖에 완충재인 신문지 풍 종지도 처음부터 고지 풍의 컬러로 했다.

상자에 붙여 단도(短刀) 역할을 하는 금색 포일의 로고가 눌린 태그와 곤포용 까만 봉투는 장기 보관으로도 포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박수(箔守)-FS'를 사용했다. 강력한 작품이면서 뉴 노멀(new normal)을 의식한 작품이 되고 있다. [PW]